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6월 뉴스레터 vol. 4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24%의 기적 '채비키트' 안에 제기를 담은 뜻은
- 조합원 배가캠페인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하세요
- 채우고 비우고 작별
- 장례 후기 코로나19 시절의 수상한 장례 풍경
- 채비장례 이야기 꽃보다 추모
- 안부를 묻다 사랑의 기억을 호두나무에 담는다
- 조합소식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채비키트’ 안에 제기를 담은 뜻은



어느 날 문득 ‘제기’가 떠올랐다. 제사 때 쓰는 그릇 말고 발로 차올리는 제기 말이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서 세 개 4천500원을 주고 구매했다. 사무실에 갖다 놓고 짬 날 때 잠깐 차 봤다. 처음엔 두세 개 차기도 바빴다. 예전 실력은 시간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나마 부지런히 발을 놀렸더니 더디게 나아지고는 있다.

내가 차는 꼴을 보더니 동료들도 하나둘 합세했다. 단번에 스무 개 이상을 차는 월등한 실력의 소유자도 있었고, 대개는 열 개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여성 동료들도 가세했다. 처음에 어색하더니 이젠 다섯 개쯤은 가볍게 넘긴다. 사무국의 5월 최고 스코어는 남자 38개, 여자 8개이다.

공간 채비나 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이나 손님도 제기를 보면 반가워하며 한두 번씩 차 본다. 뭐랄까, 향수를 자극하며 왕년의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다. 그 자세도 각양각색이다. 팔과 다리가 따로 놀기도 하고, 동시에 움직이기도 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 웃지 않고는 못 배긴다.

내가 애초 제기를 떠올린 까닭이 있다. 젊은 날 몸을 함부로 굴린 죄에 노화마저 겹쳐 무릎이 급속히 나빠졌다. 체중 탕도 있을 것이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버겁고 양반다리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가볍지 않다.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무릎이 나빠지니 운동량이 줄어들고 척추가 굳어 갈수록 유연성이 떨어진다. 악순환이다.

병원 처방을 받아봐도 시원치 않다. 소염제 복용도 그때뿐이다. ‘이러다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닐까.’ 두려워서 틈나는 대로 걷고,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관절에 좋은 운동이 없을까. 그러다 제기를 떠올린 것이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치 않고, 어디서나 찰수 있고, 골반과 관절 건강에 좋다. 또 떨어진 제기를 줍느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레 운동도 된다.

제기: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형겅에 싼 다음 나머지 부분을 먼지떨이처럼 여러 갈래로 늘여 발로 차고 노는 장난감. 발로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썸제기, 사방제기, 종로제기 따위가 있다.

사전의 정의다.

제기차기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옛 문헌은 까마득한 ‘고대의 공차기인 ’축국(蹴鞠)‘에서 비롯된 놀이’라고 기록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더기’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저기’ 또는 ‘적기’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모두 축국을 즐겼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특히 신라의 축국 기록에서 확인되는 놀이의 형태는 제기차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기를 차는 방법에는 발 들고 차기, 양발 차기, 외발 차기, 뒷발차기가 있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마주 차기도 한다. 한 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는 제기차기를 ‘땅강아지’, 두 발을 번갈아가며 차는 것을 ‘어지자지’,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혈랭이’라고 한다. 여러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미리 정해 차기도 하고, ‘삼세 가지’라고 하여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차서 합계를 내어 승부를 짓기도 한다.

우리 조합에서 ‘하나둘캠페인’을 시작했다. 조합원을 두 배로 늘리자는 운동이다. 창립 후 10년이 지났지만 조합원 3천500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적어도 조합원 1만 명은 돼야 장례문화를 바꾸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채비키트’를 만들었다. 신규 조합원에게는 가입선물로, 기존 조합원에게는 ‘영업용’으로 보내드린다.

이 홍보물 꾸러미 안에 제기가 들어있다. 이를 의아하게 여겼을 조합원도 있을 것이다. ‘이 무슨 엉뚱한 물건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기 머리를 보시라. 거기에 ‘제기발랄 한겨레두레, 건강한 장례문화를 만듭니다’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장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 매우 절박한 심정이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 우리 조합이 우리 사회의 유의미한 존재로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사회적 경제의 이정표로 우뚝 서려면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조합의 동력은 오직 조합원에게서만 나온다.

앞으로 성대한 제기차기 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그때를 대비해 열심히 제기차기 연습을 하시길 바란다. 그때 꼭 뵙기를...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상조문화가 정착하려면 자생을 위한 위한 조합원 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작별



자꾸만 오타가 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일을 하겠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의석씨 생각에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의석씨는 폐암 치료를 받던 도중 뇌로 암이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한 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부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오기까지, 나는 겨우 네댓 번 병원을 방문했을 뿐이었다. 중간에 집으로 퇴원했을 땐 자주 가서 길게 만나기도 했지만,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의석씨가 나도 못 보고 떠나 버릴까 봐 무서웠지만, 내가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선 어머니 동생의 도움이 필요했다. 안 그래도 간병인의 손길을 거부하는 의석씨의 병간호에 내 뒤통수까지, 병원과 내 집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는 어머니에게 그런 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제 일이 있는 동생을 마냥 오라 가라 부르기도 힘들었다. 나는 그날 그날 어머니 동생으로부터 의석씨의 상태를 전해 듣거나 어머니가 녹화해 온 동영상 같은 걸 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통증에 시달려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버린 밤이면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의석씨에게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내 처지를 한탄하며 혼자서 울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은 혼자서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의석씨가 그리웠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활동 보조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전동 휠체어로 갈아탔다. 며칠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갑작스럽게 마음을 먹은 터라 그럴 수가 없었다. 가고자 하는 노선에 저상버스가 배차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없으니 휠체어로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길이 험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의석씨한테 가겠다는 다짐만 가지고 길을 나섰다. 난생처음 혼자서 휠체어로 꽤 먼 거리를 가는 것이었다.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했다. 병원은 수도권 소도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시가지의 인도는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여기저기 꺼지고 패이고 튀어나온 곳 투성이었다.

휠체어로는 넘을 수 없는 턱도 곳곳에 존재했고 인도의 시작점과 끝 지점은 휠체어로 다니기 위험할 만큼 가팔랐다. 도저히 그냥 통과할 수 없는 턱 때문에 인도에서 벗어나 골목길을 한참을 돌아가거나 이 도 저도 안 될 땐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지나치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모퉁이 송연할 정도로 놀랐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몇 번이나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겐 아무 문제가 안 될 낮은 턱 앞에서도 찢절매는 내가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오로지 의석씨만 생각하며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려 병원에 도착하고 나자 폭삭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위치를 안내 받아 병동 앞에 도착해선 출입증이 없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전화를 받고 병동 앞으로 나온 엄마는 무척 놀란 듯했다. 나는 위험하지 않았냐고 묻는 엄마에게 나 혼자서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며 짐짓 큰소리를 쳤다. 엄마와 함께 찾은 병실에서 드디어 만난 의석씨는 눈을 커다랗게 부릅뜬 채 똑바로 누워있었다. 입도 반쯤 벌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로 봐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짧게나마 의사표시는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더욱 나빠진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솟았다. 이불을 살짝 들춰 의석씨의 다리를 봤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가 애처로웠다. 나는 한 손은 의석씨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나 왔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의석씨의 벌어진 입가가 허영게 터 꺼칠했다. 나는 엄마가 접어 놓은 가제에 물을 묻혀 의석씨의 입가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걸 본 엄마가 물수건을 만들어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나는 의석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 걱정이 많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잘 모실 거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나 잘 할 수 있어. 알지? 아빠 딸 소설가야. 아무나 소설가 하는 줄 알아? 나 지난주부터 신문에 칼럼도 심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나를 아직 잊지 않고 찾아 준다니까. 열심히 써서 다른 데도 좋은 글 많이 실을 거고, 곧 책도 낼 거야. 인세 많이 받는 작가가 돼서 엄마 편안히 모실 거야. 글 쓰는 재주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다 선생님, 선생님 하잖아. 엄마랑 나,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나 진짜 잘 할 수 있다니까.”

의석씨의 눈초리에 눈물이 고이는 듯 보였다. 나는 내려놓았던 젖은 가제로 의석씨의 눈가를 훔쳐 주었다.

“울지 마, 의석 씨. 의석씨가 울면 나도 눈물 나니까 울지 마. 우리 울지 말자. 응? 사랑해. 사실은 내가 의석씨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살았어. 살면서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 예뻐라, 우리 아빠. 우리 의석씨가 이렇게 잘 생긴 줄 왜 진작 몰랐을까. 사랑해, 의석 씨. 너무 사랑해 아빠.”

의석씨가 내 말을 모두 알아들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의사는 뇌 기능의 대부분 소실되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더니, 나로서는 의석씨가 부디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를 내 나름의 작별이었다.

물수건을 만들어 온 엄마가 커튼을 둘러쳤다. 그리고 우리 아빠, 의석씨의 얼굴과 손을 닦아냈다. 환자복 상의 단추를 풀어 조심스럽게 벗겨내곤 앙상하게 마른 가슴팍과 뼈가 잡히는 팔도 쓱쓱 닦았다. 상체를 다 닦은 엄마가 담요를 접어 의석씨에게 둘러준 다음 환자복 바지도 마저 벗겼다. 그리곤 새 물수건으로 의석씨의 다리와 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냈다. 기저귀를 찬 의석씨의 모습에 어쩐지 목이 막혔다. 나는 새 환자복을 꺼내 의석씨에게 입히는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 밑 그늘이 더 짙어졌고 입술은 다 부르터 있었다. 의석씨에게 약속한 대로 엄마를 모시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의석씨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 조금 전 내가 의석씨 귓가에 속삭인 말들은 대부분이 허풍에 지나지 않았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의석씨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를 바랐다. 지금은 일단,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다.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지, 왜 혼자서 와. 그 먼 길을, 위험하게.”

소변 주머니 속 소변을 따라내며 엄마가 말했다. 소변 색이 검붉었다. 그걸 보자 다시 한번 덜컥 겁이 났다.

“아빠 우리가 하는 말 알아듣고 있겠지? 다 이해하고 있겠지?”

“글쎄. 그렇게 믿어야지 별 수 있나.”

소변 주머니를 벌겋게 물들인 의석씨의 검붉은 오줌이 마치 무슨 징조처럼 여겨져서 가슴이 내려앉았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며 검붉은 오줌을 누는 의석씨. 벌써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진짜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만 싶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석씨의 의지에 너무 쉽게 동조한 것 같아 후회도 됐다. 그때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정말 그것밖에 없었는지, 나의 진심에 의구심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병원으로 향했던 길만큼 험하고 힘들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휠체어 앉아 수많은 턱과 경사를 간신히 넘길 때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것만 같아 무서웠다. 사실 난 아직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앙상하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체온이 느껴지는 의석씨의 손과 다리를 좀 더 만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날이 어둑해져서야 집에 돌아온 나는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이 어둠에 잠기도록 냇을 놓고 앉아 있었다. 작은 강아지 사랑이 곁에 와 킁킁대는 소리를 듣고서야 집안에 불을 밝히고 사랑이 저녁을 챙겨주었다. 그리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침대로 올라갔다.

‘의석씨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일상은 이어지겠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헤어지고 난 뒤에도 삶은 이어질 테고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지워갈 것이다. 그런데 의석씨는? 의석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이 턱 막혔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지 새로운 시작일지, 누가 알겠는가. 그저 오늘 작별을 하며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원래 모든 헤어짐이 그런 것일 테다. 침대에 누운 채 환한 천장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은 몸이 땅으로 꺼질 것처럼 피곤했지만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엔 잠깐, 세상이 무너질 듯 서럽게 울기도 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작별’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

황시운 | 소설가

* 이 글은 산문집 『함께 걷는 길(가제)』에 수록될 작품으로 공유를 금지합니다.

황시운: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2011년 제 4회 창비장편소설상 수상. 소설집 『그래도, 아직은 봄밤』, 장편소설 『컴백홈』, 소설집 『홈HOME』, 공저 소설집 『파인다이닝』, 공저 산문집 『책이 선생이다』가 있다.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의 수상한 장례 풍경



이번에 장례를 치른 고인은 지난 6월 6일 새벽 이른 시각 100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슬프게도 두 명의 아들은 어머니를 앞서갔다. 중년의 막내는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중이었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지 십여 일 쯤.

격리 중인 아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만 기다렸다. 사망진단서를 받는 일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연락을 받고 나는 십여 곳의 장례식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대부분 대답은 “저희 장례식장에는 모실 수 없습니다” 였다. 다행히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아들은 미국에서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 음성확인을 받았다. 입국해서 10여 일 쯤 지정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검사도 성실하게 받았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훌쩍 지나갔고 재차 음성확인을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기관에서 고인이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사망진단서는 유족에게만 발급한다. 그렇기하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가야했다. 그런데 상주는 나올 수 없고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주가 격리해제되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담당에게 보냈다. 상주는 먼 친척에게 부탁해서 가족의 관계 증명을 여러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겨우 격리면제가 되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먼저 격리를 해제하고 당일 내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출발하려 로비로 내려왔다는 상주님이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이번엔 서울시 담당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보건소 담당과 통화하기 전에 내보낼 수 없다며 막았다. 보건소 담당은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핸드폰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임에도 관련자들의 대안 없는 행정처리와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일에 상주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절차를 따랐다. 결국 늦은 저녁 힘겹게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우리는 다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도 안 맞은 분들이 우리에게 마스크도 쓰고 모이지 말래요.”

“허허~”

“방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들은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은 더 했다. 처음에는 입국이 아예 안됐다. 입국이 허용 된 후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코로나19 음성확인을 받고 장례 중에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격리 면제를 받아도 대부분 장례식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 15일의 잠복기 부담을 감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먼 곳에서 휴대폰 영상으로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분도 계셨고 한국에 힘겹게 도착해서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기도 했다.

화장이 끝난 이후에야 부모님의 유해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는 상제도 지켜봐야 했다. 누구의 탓도 아니기에 더 마음이 아팠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시국이 속히 지나가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다. ✨

김윤식 | 장례지도사



꽃보다 추모



4월 말 추모 장례를 치르겠다는 가족이 우리 조합에 연락을 했다. 두 분은 남매였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깊이 추모하며 보내고 싶다고 했다. 조의금과 근조화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근조화와 조의금을 받지 않으면 문상객의 애도 행위를 차단하는 일 일 수도 있어 유족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형식화된 조의금과 근조화로 문상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두 남매의 결심은 굳건해 보였다.

장례 첫날 저녁에 유족들은 추모식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서로 모았다. 사진을 모으고 올리는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렸을 것이다. 고인의 딸이 조문보에 실을 아버지의 생애사를 간단히 썼다. 전에 고인을 뵈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고인을 충분히 추모할 수 있을 정도였다.

둘째 날 아침 일찍 공간채비에는 빈소가 설치되고, 고인의 영정이 놓였다. 여행지에서 멋진 모자를 쓰시고 밝게 웃고 계신다.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 모습이였다. 크고 작은 촛불과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은 풍성해졌다. 가족들은 유품을 전시했다. 고인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작은 유품들이 추모식장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오래된 통장과 자격증들이 고인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말해주었다. 고인의 아들은 유품을 전시하며 아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유족은 근조화와 조의금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사양했다. 문상객들은 조문 후에 조문보를 읽고 고인의 생애를 살펴본 후에 메모리얼포스트에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인사를 적었다. 식사가 없었지만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상객들은 참 낯설고 특별한 장례식을 접하고, 장례 지도사와 추모 플래너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깊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과 몇몇 친지와 지인들이 남아서 추모식을 시작했다.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했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진지했다. 고인 추모영상이 그야말로 영화 시네마천국의 필름처럼 아련하게 지나갔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관한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 놓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힘겨웠을 사람은 아내인 어머니였을 텐데 어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유족도 메모리얼포스트를 썼고, 다음 날 입관할 때 고인의 품에 넣어드렸다. 추모식이 끝나고 프랭크 시나트라 의 ‘마이웨이’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며 위로하였다.

4월 말에 있었던 추모식은 처음으로 치른 1일 가족장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한동안 회자되었다. 추모장례를 하려는 유족의 결심이나, 장례 기간 동안 유족이 보여준 인격적인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유족은 우리 조합을 향해서 ‘복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조의금과 근조화보다는 아버지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던 가족이 만들어 놓은 기억의 공간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신비로운 생각을 해본다.✽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사랑의 기억을 호두나무에 담는다

디자인주권 김용권 대표, 조동완 부대표



비가 오다 말다 하는 날이었다. 디자인주권(아래 주권)의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228. 조립식 창고를 얻어 공장 겸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청바지 차림의 김용권 대표와 조동완 부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그들 곁에서 평생 친구인 ‘할아버지 개(사람 나이로 치면 구십이 넘었다)’도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흐린 하늘이 걷히고 반짝 해가 났다.

“호두나무는 전 세계 널리 퍼진 수종인데, 북미산 호두나무가 특히 목질이 촘촘해 습기나 힘에 아주 강합니다. 색과 결이 곱고 아름다운 고급 목재지요. 우리 조상들도 호두나무를 신성시해 ‘왕의 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봉건시대 왕들이야 좋은 것은 모조리 독식했을 것이다. 그걸 떠나서라도 호두나무는 귀한 목재다. 주권은 그 귀한 목재로 유골함을 만든다. 그래서 이름도 ‘귀함’이다. 대개 유골함은 도기나 오동나

무로 만든다. 방진·방충·방습 기능을 더한 유골함도 있다지만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그래서 유골함을 한지로 싸거나 내부에 숯을 넣는다. 주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숯보다 5천 배 이상의 초미세 공간구조를 가진 구조토가 내부 면에 도포되어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흡수하고 반대로 건조 상태가 되면 수분을 방출합니다. 급격한 습도 변화를 억제하는 구조토의 기능으로 귀함은 습도가 일정해 유골이 굳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의 우려가 적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확신에 찬 답이 돌아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결로시험을 마쳤습니다. 영하 20도와 영상 50도 사이에서 시험을 반복했는데 ‘결로 없음’ 결과가 나왔어요. 몇 년 전 우리 ‘애(반려견)’가 죽어서 한지 유골함에 임시로 담았다가 호두나무 유골함에 옮겨 담았지요. 3년이 지나 그 유골함을 열었는데 골분이 뽀얗게 올라올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생동지’이다. 둘 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광고회사를 운영했다. 한데 그 시간이 너무 피곤했다. 의뢰인의 마음에 들려면 늘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했다.

두뇌가 쉬지 않고 스물네 시간 작동했다. 육십 고개를 넘어서면서 그 ‘무간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함께 살던 반려견이 이성을 하직했다.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았는데 그 유골함이 성에 차지 않았다. 그가 디자이너이지 않은가. 더 좋은 재질로 더 미려한 유골함을 만들고 싶었다. 목재를 좀 안다는 이에게 물었다.

“제일 좋은 목재가 뭐여?”

그렇게 시작했다.

“반려동물 화장장을 돌며 시장조사를 했어요. 반려인들은 함께 하던 개와 고양이는 물론 닭, 금붕어, 다람쥐와 이별하며 구슬피 울었어요. 사랑하는 존재의 흔적을 더 좋은 것에 담기를 원했지요.”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한다’는 전략은 주효했다. 호두나무 유골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그 기세를 몰아 반려동물 식기, 침대, 놀이기구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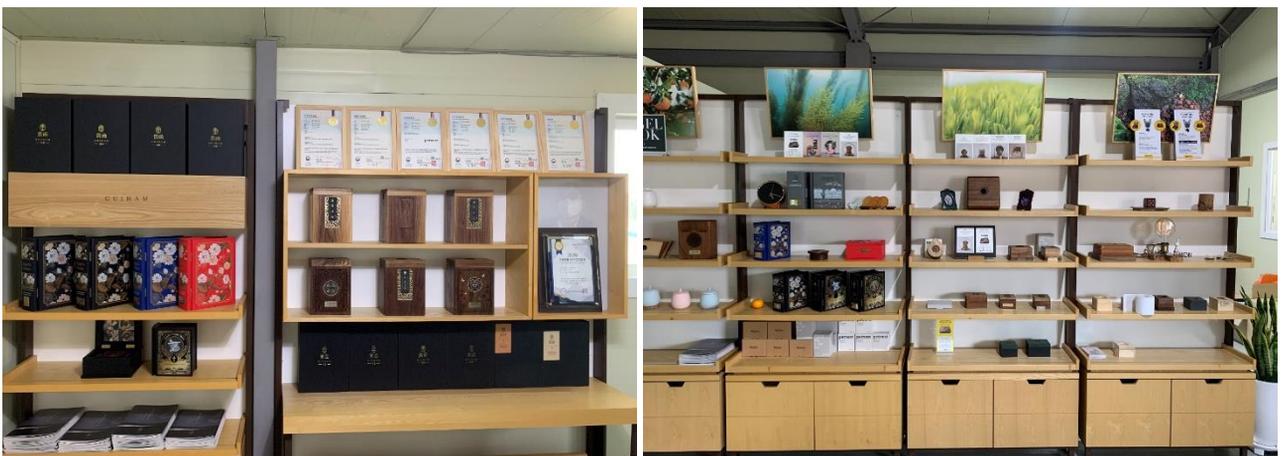
“주변에서 자꾸 왜 사람 유골함은 안 만드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 때가 됐구나’ 싶어 작년부 터 개발에 들어갔어요. 일반 소비자 판매는 안 하고 비투비로 판매하는데 우리 조합원에게는 당연히 할 인해서 제공해야겠지요?”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시작한 김 대표와 조 부대표. 이들은 우리 조합에 영업차 방문했다가 바로 가입했다.

“우리가 상조회사 여러 곳을 만나면서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족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보다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방문했는데, 그 취지를 듣는 순간 ‘아, 이거 괜찮다’ 생각했어요. 우리 조합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릇된 장례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으니까요.”

나도 죽어 저 유골함에 담기면 참 좋겠다고 하자 큰 웃음이 터졌다. 어느덧 맑게 갠 하늘에 구름 몇 조각이 흘러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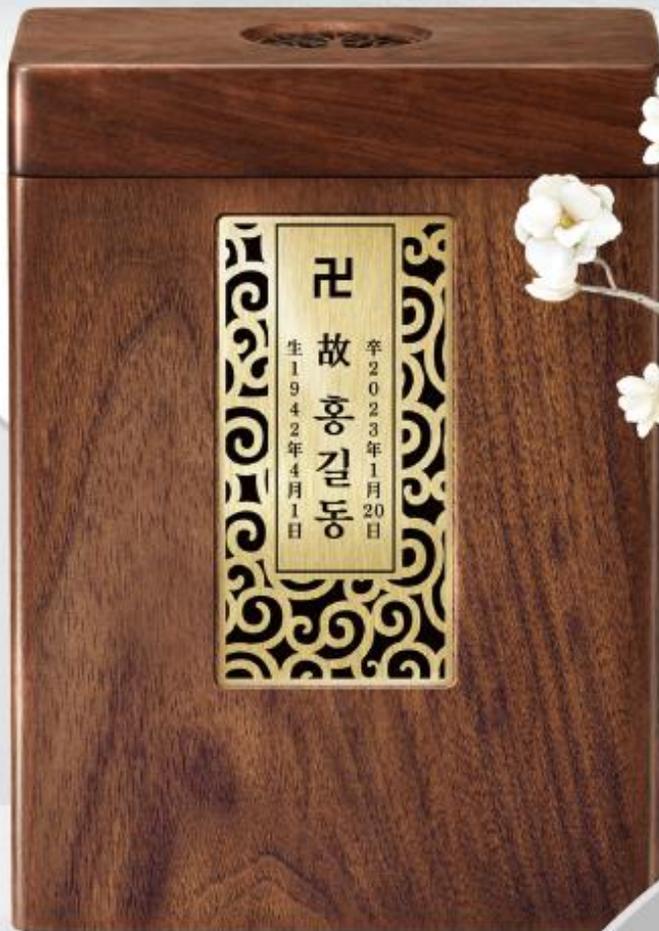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귀한 분 귀하게 모시는 - 귀함
삶을 생각하고 님을 추억합니다



GUIHAM
— 귀함 —



습도조절



항균기능



파손없음



결로방지

'귀함'은

색과 결이 고운 친환경 호두나무 안치함으로 내부면엔 숲보다 5,000배 이상의 초미세 공간구조를 가진 규조토로 마감돼 있기 때문에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유골이 굳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의 우려가 적습니다.

문의 1588-9517

Design **JOO KWON**
디자이너주권

타인의 삶



그래도, 아직은 봄밤

황시운 지음 | 교유서가

이 책에는 9편의 소설이 실려있다. 어느 한 편 편하게 읽기 어려웠다. 삶이 이렇게 불행해도 되는가, 소설 속 인물의 사연은 하나 같이 안타깝고 기구했다. 인간이 타인에게 자행하는 폭력은 너무 가혹했다. 이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아마 없겠지, 생각하니 깊은 절망이 생겼다. 그럼에도 나는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소설이 단순하게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면 굳이 시간을 들여 읽을 필요가 있을까. 대체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자주 이렇게 질문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소설 속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으로부터 잠시동안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사고로 더 이상 견지 못하게 된 작가의 시선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세계로 향한다.

고독사의 현장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 내던져진 청소년들에게로, 결혼 후 닥쳐온 불행한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남편의 둔 여자의 일상으로, 어린 아이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싸늘한 시선으로, 가족 해체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많은 통증을 이야기한다. 어떤 얘기는 어제 내가 겪은 일 같고 어느 소설 속 인물들은 세상에 있을까 싶도록 잔인하다.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까. 왜 그런지 답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 지금 대답을 일 년후에도 할 수 있을까.

문득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다. 나는 왜 가망 없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는 왜 끝도 없이 수치를 견뎌야 하는 건지, 나는 왜 진작 그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는지, 그는 왜 더 질리게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는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왜, 그는 왜, 우리는 왜 …… 「매듭」 중에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이런 질문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다만 작가는 소설을 통해 삶에 질문하고 독자는 자신의 삶 안에서 대답한다. 하지만 대답은 매번 달라진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과정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았다” 고 말하는 작가의 말에서도 짐작하듯이 우리는 단지 지금의 내 존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길 원하고 그 힘으로 조금씩 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명사특강 후기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연명 치료에 관해

강사 김형숙 :전직 중환자실 간호사. 현재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역서로 『코드그린:의료영리화가 무너뜨린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이 있다.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를 종결하는 것이고 삶의 영원한 종말이다. 임종은 죽음이 임박한 상태,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놓여짐을 의미한다. 48시간동안 혈압 감소, 혼수상태, 호흡 이상이나 곤란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나타날 때 임종이 임박해 왔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죽음은 몸의 기능이 서서히 멀어가는 신체적 측면과 더불어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가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기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임종 직전이 아니다. 말기를 임종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 되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연명 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연명치료의 문제는 무엇일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연명 치료 거부를 결정하는가, 임종의 단계에 진입했는가, 문제를 확인하는 것들이 남아 있다.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에 관한 것이다. 의식이 있을 때 사전의료 시술에 대해 계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전의료계획서의 종류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연명의료계획서(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등이 있다.

사전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명 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나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예상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도삽관 등으로 삶의 마지막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혼자 떠나지 않아도 된다. 사전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 죽어가는 이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걱정되는 문제들에 관해 의논할 수 있다. 그간 쌓인 갈등을 해소하거나 삶의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을 위한 작은모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간 채비를 이용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채비장례와 연결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명: 작은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년8월~12월 15일

■ 모집 분야: 제한 없음 (아이디어: 1인가구장례 품앗이, 품앗이 포럼)

■ 모집 대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인, 가족 등 선정 기준에 부합한 모임

■ 지원 내용: 총 200만원 지원(각 모임당: 운영비 30만원, 채비공간 14시간 이용권(70만원))

■ 지원 규모: 2개 모임(모임당 인원 최소 5인이상)

■ 모집기간: 2021년 7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 진행: 모집 → 서류심사+면접심사 → 선정자 발표(개별통보)

- 문의: 722-9517/ 720-9517 (오전10시~오후 5시)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http://naver.me/5OnH30eo>

- 이메일 접수 (memorypicture@naver.com)

■ 유의 사항

■ 심사 관련

- 심사와 선정, 관련된 사항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 관련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 사업서는 사무국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 계획이 추진 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의무와 협조 사항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과정과 성과물 제출(첨부 양식)

-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 기록물 필수(활동 영상, 사진, 활동 결과물 사진 등)

-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과 관련 자료는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모임 홍보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적극 지원함

‘한겨레 소로리 토종학교’ 개교



〈한겨레〉와 임원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인류 최고(最古) 법씨마을 청주 소로리에 토종학교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씨가 발견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진행되는 ‘한겨레 소로리 토종학교’는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윤석위 이사장이 초대 교장이며 조선시대 대표적 농서인 ‘임원경제지’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농작을 체험하는 학교입니다.

김상현 한겨레두레연합회 회장, 황왕호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 박갑주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이사가 함께 참석하여 개교를 축하하고 농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마포의료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지난 6월 7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마포의료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웰다잉교육과 건강강좌, 통합돌봄과 방문 호스피스 등 상호협력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2021. 5월

노은실 조합원 시부상
이승환 조합원 부친상
임현택 조합원 부친상
홍선용 조합원 형수상
김소영 조합원 시숙상

이명진 조합원 본인상
박규섭 조합원 빙부상
노환춘 조합원 부친상
정 훈 조합원 빙부상

문중호 조합원 빙모상
김정찬 조합원 부친상
여상재 조합원 부친상
조현일 조합원 부친상

2021. 4월

김지현 조합원 모친상
남기정 조합원 모친상
김경숙 조합원 모친상
신홍수 조합원 모친상
하영만 조합원 지인상

정선원 조합원 빙부상
김정순 조합원 시모상
묵인희 조합원 모친상
최주명 조합원 빙부상

이혜경 조합원 부친상
강영아 조합원 시부상
정성진 조합원 부친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2021. 3월

조영호 조합원 모친상
이인희 조합원 부친상
백옥진 조합원 부친상
이학기 조합원 매제상
서동재 조합원 빙모상
한정택 조합원 부친상

장교순 조합원 조카상
권태호 조합원 부친상
황성대 조합원 처남상
안정석 조합원 부친상
양영철 조합원 부친상
배인용 조합원 부친상

김경일 조합원 모친상
김광호 조합원 빙부상
최선아 조합원 모친상
김혜란 조합원 시부상
정윤수 조합원 부친상
배현지 조합원 배우자상

*추모지원: 유창주님, 장영민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층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